

이지케어텍, 미국 내 다섯 번째 병원 BESTCare2.0B 오픈

- ▶ 애리조나주 소재 템페병원 BESTCare2.0B 시스템 오픈
- ▶ 20일 만에 구축 완료.. SI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패키지 포팅 방식으로 사업 전환

<2019-07-02> 이지케어텍의 오로라병원그룹 프로젝트가 순항 중이다.

대한민국 의료IT 선도기업 이지케어텍(대표이사 위원량, 099750)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컨소시엄을 통해 미국 애리조나 주에 위치한 오로라 템페(Tempe)병원에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인 BESTCare2.0B 구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번 템페병원은 2017년 오로라 병원 그룹과 맺은 15개 병원 통합 구축 프로젝트 중 다섯 번째 병원이다.

이번 템페병원 프로젝트는 글렌데일병원의 안정화 이후 20여일만에 완료한 프로젝트로 기존 SI(시스템 구축형 사업) 사업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패키지 포팅으로 사업 방식이 완전히 전환 됐음을 보여줬다. 또한 의사, 간호사, 약사로 구성된 변화관리팀(Change Management)과 엔지니어 10여명으로 구성된 작은 팀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나, 높은 수준의 인터페이스를 선보여 현지 관계자들로부터 역대 최고의 전문 팀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한편, 글렌데일병원(4번째)과 템페병원(5번째)은 베스트케어2.0B를 구축함으로써 애리조나 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게 되며, 향후 5년동안 지난 1년간의 메디케이드 보험료의 3%를 돌려받게 된다.

글렌데일병원과 템페병원의 CFO를 맡고 있는 레베카(Rebekah W. Francis)는 “베스트케어팀의 능력과 베스트케어2.0B 솔루션의 우수성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단기간에 2개 병원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내 여러 병원에서 베스트케어에 대한 레퍼런스 체크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하며 사업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지케어텍 위원량 대표이사는 “글렌데일병원에 이어 템페병원까지 오픈하며 오로라 병원그룹과의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기쁘다”며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 애리조나주를 먼저 적극적으로 추진해 레퍼런스를 쌓고 미국 전역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사업의 영역도 더욱 넓혀 갈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자료 1. 사용자 교육



사진자료 2. 간호스테이션에서 간호사가 BESTCare2.0 를 사용하는 모습



사진자료 3. 템페/글렌데일병원 CFO, Rebekah

